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4.(수) 11:00 / 11. 5.(목) 조간 배포 2026. 11. 4.(수) 06:00

농촌진흥청, 스마트 농기계 국제 협력 강화… 세계 시장 진출 기반 넓힌다

- 5일, 대구 엑스코 '국제 농기계 심포지엄' 개최
-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마트 농기계 기술·표준화 협력 강화
- 한-멕시코 업무협약 이행, 농기계 인증·표준 협력·중남미 시장 진출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KIEMSTA*)'와 연계해 11월 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국제 농기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KIEMSTA: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of Machinery, Science and Technology for Agriculture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지속가능한농업기계화센터(CSAM)*, 멕시코 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청 등 국외 기관과 국내 농기계협동조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학계 등 국내외 농기계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 지속가능한농업기계화센터(CSAM):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지역 기구 중 하나. 2012년 발족해 농업기계화 및 기술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활동 중

이날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지 지능형 스마트 농기계-기술 혁신에서 현장 확산까지'를 주제로 스마트 농기계 기술 개발과 표준화, 시험·평가 및 확산 전략을 논의한다.

3개 분과로 나눠 △데이터 기반 지능형 농기계 혁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동향 △스마트 농기계 표준화·시험평가 체계 및 국가별 추진 현황 △정책·산업 협력을 통한 스마트 농기계 현장 보급 및 확산 전략을 공유하는 총 9건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농업기계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 농업 환경과 기계화 수준 차이가 커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기계화와 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점을 인정받아 2025년 4월 지속가능한농업기계화센터(CSAM) 집행이사국에 처음 선출됐고, 2028년까지 공식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멕시코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농기계 인증·표준 제도에 대한 상호인정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아·태 지역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과의 농기계 기술·표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별 농업 환경과 기계화 수요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국내 농기계 기술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최광호 국장은 "스마트 농기계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가 간 표준과 시험·평가 체계를 연계하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고, 한-멕시코 업무협약 후속 중남미 지역과의 기술·표준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제 농기계 심포지엄 개요
2. 세부 일정

담당 부서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민경 (063-238-1110)
		담당자	연구사	김찬우 (063-238-1120)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과	책임자	과 장	김병갑 (063-238-4041)
		담당자	연구사	윤영태 (063-238-4143)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국제 농기계 심포지엄 개요

□ 추진배경

○ **아·태지역의 농기계 시장**은 전 세계 수요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나, **국가별 기계화 수준과 농업 환경 편차가 큰 상황**

* 한국은 CSAM[1]의 집행이사국('25.4~'28.3)으로 CSAM의 주요 정책 및 국제협력 강화

⇒ CSAM 집행이사회의('25.11.) : 아·태지역 국가의 기계화 사업 추진 요청

○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농기계 시장 진출 확대**와 **기술 표준화 선도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한-멕시코 정상회담 후속 조치('26.9.): 농기계 인증·표준 제도 상호 인정 협의

□ 행사 개요

○ 일 정 : 2026. 11. 5.(목) 13:00~17:20, 대구 EXCO 504호[2026 KIEMSTA2] 연계

○ 주 제 :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지 지능형 스마트 농기계-기술 혁신에서 현장 확산까지

○ 참석자 : 정부 및 공공기관, 학회 관계자, 민간 등 80여 명

○ 주요 내용 : 개회사, 주제별 세션, 패널 토론 등

* 세션 1 : 데이터 기반 지능형 농기계 혁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동향

* 세션 2 : 스마트 농기계 표준화·시험평가 체계 및 국가별 추진 현황

* 세션 3 : 정책·산업 협력을 통한 스마트 농기계 현장 보급 및 확산 전략

○ 발표 연사 : **(국내) 농기계협동조합, 생산기술연구원, 학계 등 5명**

(국외) CSAM·멕시코 관계자 등 4명

□ 기대효과

○ 아·태 지역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우리 농기계 기술 표준화 및 시장진출 확대 기반 마련

1) CSAM :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

2) 2026 KIEMSTA :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11.4.~11.7.)

붙임 2 심포지엄 세부 일정

시 간	세부내용	발표자
12:30~13:00 (30분)	○ 현장등록 및 안내	
13:00~13:10 (10분)	○ **개회식** : 환영사(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 축 사(정선옥 한국농업기계학회장)	서우덕 팀장 (국제기술협력과)
13:10~13:20 (10분)	○ 사진촬영 및 정리	
(세션 1) 데이터 기반 지능형 농기계 혁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동향		
13:20~13:40 (20분)	○ **주제 1** : 한국 지능형 농기계 기술 및 국제 협력 현황	김병갑 과장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과)
13:40~14:00 (20분)	○ **주제 2** : 스마트 농기계에서 피지컬 AI로 : 농업 로봇, 농장관리정보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의 융합	김학진 교수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14:00~14:20 (20분)	○ **주제 3** : 중국 지능형 농기계 기술 및 상용화 동향	Wu Junqi 상임고문 (중국농기계유통협회)
14:20~14:30 (10분)	○ 질의응답	
(세션 2) 스마트 농기계 표준화·시험평가 체계 및 국가별 추진 현황		
14:30~14:50 (20분)	○ **주제 4** : 스마트 농기계 국제표준, 안전 및 성능 기준	양승환 박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50~15:10 (20분)	○ **주제 5** : 농업로봇 기술개발 트렌드 및 규제 동향	Dr. Hasan Silleli (앙카라대학교)
15:10~15:30 (20분)	○ **주제 6** : 농기계 시험평가, 검인증 및 실증	한태호 팀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기계검정팀장)
15:30~15:50 (20분)	○ **주제 7** : 멕시코의 시험평가, 인증 및 상호인증 사례	Dr. Alma Velia Ayala Garay(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청)
15:50~16:10 (20분)	○ 질의응답 및 휴식	
(세션 3) 정책·산업 협력을 통한 스마트 농기계 현장 보급 및 확산 전략		
16:10~16:30 (20분)	○ **주제 8** : 국내 농기계 산업화,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남규철 부장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16:30~16:50 (20분)	○ **주제 9** : 아태지역 스마트 농기계 정책 및 보급 사례	Marco Silvestri 부소장 (CSAM)
16:50~17:20 (30분)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폐회	서우덕 팀장 (국제기술협력과)